

임실군, 내년 예산 3302억 확정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마을 공동급식비 지원 등 농업 기반 조성

임실군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 보다 110억원(3.46%) 증가한 총 3천302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전체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금년 보다 65억원(9.1%) 증가한 783억원을 편성해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과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 등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실N양념식품육성 5억원, 임실N과수 융복합화 13억원,

농축산물 생산안전 기금조성 11억원,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11억원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 분야는 566억원을 편성해 함께 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구축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보건 의료 등 취약분야를 적극 지원해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섬진강 예코뮤지엄 조성 30억원, 대표관광

지 조성 11억원 등 146억원을 편성했으며, 열악한 교육여건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봉황인재학당 건립에 21억원을 투입해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시급한 군민 요구 사업과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며, "투명하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재석 임실생약 대표, 농업기술명인 선정

식량·채소·과수·화훼·특작·축산 등 최고 1인 선발

심재석 임실생약 대표가 영경귀를 활용한 6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훼·특작 분야 에서 '2016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추천 후 3차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 및 현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심재석 대표는 35년 동안 약용작물 산업에 종사하며 재배, 기능성연구, 가공, 관광, 마케팅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영경귀를 국내 최초로 생산 단지를 조성해 생산했다.

또한, 재배법을 농가에 전파하고 현재는 약 175,000㎡의 재배단지를 조성,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원료수급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심 대표는 지난 1977년 4-H 활동을 시작으로 오수면JC 회장, 농업

경영인회, (사)의견문화 진흥회 회장, (사)한국신지식농업인 중앙회 부회장, 전라북도 약초동호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약용작물 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

심재석 대표는 "영경귀라는 새로운 소재의 가치를 활용하고 다양한 상품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해 지역 특산자원으로 산업화할 계획"이라며, "여성갱년기 기능성 식품연구를 비롯해 헬싱케어 기능성, 관절염 기능성 소재로 연구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기능성 바이오 소재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통해 임실군을 명실상부한 영경귀 산업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

맞춤형 복지 구현 결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경영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시상식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월간중앙, JTBC가 후원해 열렸다.

이 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혁신경영 등 리더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해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경영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제언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친환경 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연 생태관광도시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업화와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소통 행정에 힘써왔다.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전하면서 군민들이 이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곡삼사르습지 예코촌 조성사



업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인진강기수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미래에는 잘 보존관리 된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자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 행복하고 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대사성질환 치유음식 개발

39종 최종 품평회 진행

순창군은 지역 특산물로 만든 대사성질환 치유음식 39종을 최종 개발해 향후 치유음식 산업화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순창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대표음식 및 대사성질환 치유음식 최종 품평회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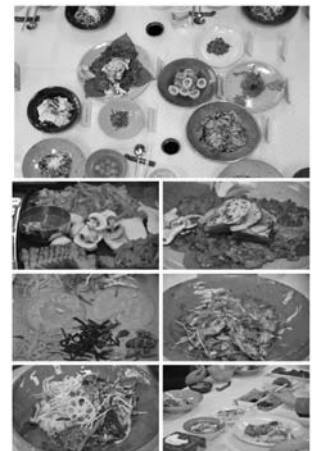
이번 개발은 순창군의 역사, 음식, 문화에 대한 사전조사와 소비자 분석을 통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방식으로 진행됐으며 6가지 테마별 식단에 39종의 음식이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식단은 옛 문화가 담긴 임금님 진상 고추장 활용밥상인 '순창고추장정식' 순창 흑염소와 약

초소스를 활용한 '순창약념(藥念)밥상', 순창 절임류를 활용한 '순창 장아찌 밥상', '순창 장수오곡밥상', 순창 4계절 로컬푸드를 활용한 '순창아리랑계절정식', 장류, 발효, 장수를 주제로한 '장발장정식', 순창의 식재료로 만든 '순창의 대표메뉴' 등 총 6가지 식단이다.

메뉴 개발 컨셉은 영양과, 효능은 맞추고 칼로리는 낮추었고, 물질기준으로 무MSG,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나트륨 저감화 등 천연음식을 지향했다.

또 조리방법도 유지류의 사용을 적게하기위해 볶음, 튀김류들은 지양해 건강음식의 컨셉을 최대한 살렸다. 특히 발효 5미소스를 개발해 요리에 사용되는 양념 및 조미료를 대체하고



다양한 품종으로 활용해 조리의 간편함 및 천연음식의 이미지를 크게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신태인읍 왕신여고, 사랑의 연탄 배달

정읍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세대 417장 전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훈훈한 미담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고생들의 따뜻한 사랑나눔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신태인읍 왕신여고 1학년(담임 김금자선생님) 학생들. 이들은 지난 21일 교사, 지역주민과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 세대에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이날 연탄 배달에 나선 20여명은 모두 3세대에 417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특히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가정에 릴레이 방식으로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고 잠깐이지만 말벗도 되어 드리면서 연탄을 배달하고 나니 마음이 훈훈해지고 뿌듯하다"고 밝혔다.

했다.

신태인읍 관계자는 "겨울철을 맞아 훈훈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주시고 학생과 교사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신태인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왕신여고 학생들의 사랑의 연탄배달은 1학년 학생들의 학급 특색 사업이다. 학교가 소개하고 있는 인고마을 주민들과 협력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효' 실천을 통해 갈수록 희미해져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높임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문화원 김문소 사무국장, 용감한 시민상 수상

하천에 뛰어든 주민 구해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22일 오전 순창문화원에서 위업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 공적으로 순창문화원 사무국장 김문소(56)에게 경찰청장 명의의 '용감한 시민' 감사패와 기념품을 수여했다.

용감한 시민장은 위업을 무릅쓰고 인명구조와 범인검거, 위험방지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제도로 이번 경찰청 주관 용감한 시민장은 전국에서 16명이 선발되었으며 도내에서는 최초로 수상하게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사무국장은 지난 5월 15일 순창군청 앞 순창교 밑 하천

에 있다가 순창교에서 하천으로 뛰어 내린 주민을 보고 즉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물밖으로 건져낸 뒤 응급 조치하여 소중한 생명구한 것이다.

용감한 시민장을 받은 김 사무국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누구라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며 겸손함을 보였다.

신일섭 서장은 "위급한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시민정신을 발휘해 인명을 구조한 김사무국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용감한 행동이 순창지역에 널리 알려져 신뢰가 넘치는 건전한 공동체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과실류 산업화 조성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가 2016년도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인 고행지 과실류(포도, 사과) 생산 단지에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6차 산업 모델을 개발하였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주도품목에 기술·교육·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고령지 과실류(포도, 사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 추진한 주요사업은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포도·사과 가공시설 건축 및 가공기계 설치, 식품제조허가, 사과 수확철 농업장 운영,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컨설팅, 선진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에 주력하며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과 수량증대,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15~20%이상 향상시키고, 생산, 가공(즙·와인), 판매로 이어지는 6차 산업화 단지로 모델을 개발하였다.

한편, 과수기술 담당자에 의하면 2017년에 포도·사과 가공 제품 활성화하고 신제품 개발 및 6차 산업 인증제를 추진하여 지리산권 고행지 과수(포도, 사과)를 6차 산업화 단지 할 계획임을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장류사업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순창군은 장류사업소가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추진협의회에서 지역고고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장류사업소는 지난 200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지체연구소육성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연계산업 발굴,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 및 원료농산물관리 체계구축,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통해 순창군 전통 장류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2006년부터 꾸준한 기술이전 및 행정적 지원 등으로 지역산업체의 매출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장류사업소 김재건 소장은 "장류사업소 직원들이 땀과 열정을 쏟은 결과이며 더욱더 노력하라는 체적이라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으며, "장류사업소 직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순창군의 전통장류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건강증진분야 도시사 표창

임실군이 전북도가 주최한 '2016년도 건강증진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금연사업 유공기관 도시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 사회 중심의 금연사업 일환으로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학교, 주민, 장병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및 이동카니자를 운영했다.

그 결과 535명의 금연프로그램 등록과 6개월 금연성공률 48.3%를 달성하고 흡연률은 2014년 20.4%, 2015년 19.5%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원 1층부터 3층 계단 공간을 활용해 흡연의 유해성을 홍보하는 등 효율적인 금연사업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의욕과 금연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